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장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및 청렴워크숍 개최
- 경남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및 정비 실시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대상지 공모
-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 풍수해 예방효과 톡톡
- 경남도, '도민행복주택' 지원 협약식 개최
-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0월 1일부터 휘도측정시험 실시
- 경남미래 50년,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에 청신호 켜져!
- 경남도, 낙동강수계 녹조 발생 예방 위해  
2020년까지 1조 3,231억원 투입
- 창원시,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  
주민불편사항 신고
- 김해시, 소하천 98개소 시설물 일제점검 나서
- 양산시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박차

### ■ 지식정보 ..... 11

- '공사비 절감, 기능향상' 최적설계 활용 쉬워져
- 건설품질경영 대상 25일까지 사례 접수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실시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26일 기공식 가져
- 도로면 비탈면 정비 매년 1,000억이상 투입
- 경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3조 3,855억원  
정부예산(안)에 반영
- 통영 육지도 및 거제 장승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나

### ■ 칼럼 ..... 20

### ■ 최신법령 및 관련정보 ..... 22

### ■ 신기술 정보 ..... 26

###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7

### ■ 계약심사 현황 ..... 28

### ■ 기술인 나눔 정보 ..... 28

## 건설관련 소식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및 청렴워크숍 개최

▶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공정한 설계심의  
다짐 청렴서약

경남도는 지난 9월 30일 경남대학교 한성대 교수 등 도내 대학교수 및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동안 기술형 입찰 공사 설계평가심의를 수행하게 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한 심의를 다짐하는 위원 청렴서약과 함께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워크숍 전경>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토목, 건축, 환경, 기계·전기 등 6개 전문분야에 걸쳐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요건과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20일 위촉하였으며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8월 30일자로 공개했다.

이날 가진 워크숍에서는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들의 청렴유지와 윤리행동강령 실천을 결의하는 청렴서약과 함께 경남도 조현옥 감사관의 “청렴으로 경남을 바꾼다.”는 주제의 청렴교육도 있었다.



<위원대표 청렴서약>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은 건설행정에 날로 증가하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의 해안과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6

## 경남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및 정비 실시

- ▶ 전문성과 내실화에 기여, 건전한 감리 시장 육성

경남도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감리시장의 동반위축으로 부실·부적격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건전한 감리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내 45개 업체(종합11, 토목32, 건축2)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1차 서면조사하여 10월 11일까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는 2차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미비사항은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해 감리 전문회사의 전문성 향상과 내실화를 유도하고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기술자 중복등록 8건, 장비 검·교정 미실시 49건,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2건, 감리원 교육미이수 10건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3개사 1,020천원, 영업정지 3개사, 등록 취소 1개사 등의 정비 실적을 거두었다.

한편, 경남도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감리전문회사의 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인팀당  
(055)211-4626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대상지 공모

- ▶ 전국 10개소 선정, 1개 지구당 국비 약 10억원 지원

경남도는 2014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밝혔다.

2009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고, 2014년부터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지구개념의 공모제사업으로 추진방식이 변경된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자동차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편리한 도로,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도로, 선택과 집중의 가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2014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은 2012년 8월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을 고시한 후 사업계획서를 9월중 경상남도에 제출하면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안전행정부에 추천하게 되는데 10월경 안전행정부와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2014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약 10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조성되어 자동차 통행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등 전반적으로 보행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5

##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으로 풍수해 예방효과 톡톡

경남도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개소 825억원을 12월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어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한시라도 빨리 추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올해 초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하여 2월말까지 90%이상 발주, 6월말까지는 60% 이상 사업준공, 연말까지는 전지구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경남도는 시군 담당자와 맨투맨으로 연결하면서 주간단위 회의, 월간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2013년 사업장별 예산 확보, 설계·보상, 공사발주 등을 종합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2013년도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단」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미집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금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름철 뿐만 아니라 도심 저지대와 고립지역 등의 재해취약요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지구는 2013년도까지 총 예산 8,307억 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131개 지구를 완료하여 재해위험해소에 크게 기여 하였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4

## 경남도, '도민행복주택' 지원 협약식 개최

▶ 경남도·주택건설업체·유관기관 합동, 전국에서 최초 시도

경남도는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이장희 태영건설 상무, 김영주 한림건설 부사장, 허경효 덕진종합건설, 이효권 LH공사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행복주택'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민행복주택'은 경남도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 선정을 하면 태영·한림·덕진종합주택건설업체에서는 가정당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리모델링하고, LH공사는 가정 당 3백만 원의 물품기증 및 자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각 1가정으로, 대부분 저소득 조손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어서 앞으로 주거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건축직 공무원들도 휴일 이삿짐 이동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지금까지 지자체나 민간주도로 추진한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행정과 주택건설업체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원봉사에서부터 주택리모델링, 저소득자녀 멘토까지 One stop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민행복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주거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회,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추천받은 후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직접 현장 방문을 거쳐 지난 8월에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김해지역의 조손가정은 추석 전에 입주를 완료하기 위해 공사를 지난 주에 공사를 착공했고, 창원과 진주의 다문화가정도 추석 후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행복주택’은 저소득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택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이후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참여업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민행복주택 명패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행복주택 협약식>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3

##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0월 1일부터 휘도측정시험 실시

▶ 도로의 노면밝기 측정 가능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의 노면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휘도측정시험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휘도측정시험 실시는 2012년 12월 개정된 경찰청메뉴얼 차선 반사휘도 기준이 백색 130mcd/m<sup>2</sup>lux에서 240mcd/m<sup>2</sup>lux로, 황색은 90mcd/m<sup>2</sup>lux에서 150mcd/m<sup>2</sup>lux로 2배 정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체 도로에 대하여 반사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수용성 도료를 사용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야간과 우천 시 도로의 주행 중에는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차선반사성능 기준값을 상향 개선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내 전 시·군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도로공사의 준공 전 회도측정시험을 시행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해 전국 15개 시·도 국·공립 시험기관 중에서 시험건수 4,756건, 수수료 3억 2500만 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건설공사 품질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실한 건설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여 고품질의 건설시공을 통한 안전한 도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품질관리담당 (055)254-4232

## 경남미래 50년,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조성에 청신호 켜제

▶ 정홍원 국무총리, 9월 11일 밀양 방문해 나노국가산단조성 지원 약속



경남도가 홍준표 도지사를 중심으로 미래 50년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1일 송전탑 문제로 밀양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나노융합국가산단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밀양시청에서 열린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경남도의 미래 50년 주요사업인 ‘나노융합복합산업단지’는 정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나노융합복합산업단지는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과 더불어 경남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이번 국무총리의 입장표명은 경남도가 그간 당정협의회와 중앙부처 등에 수차례 건의하여 이끌어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융합복합 산업단지는 밀양시 북북면 일원 343만㎡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934억 원을 투입하여 나노융합 기업체, 나노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09년 6월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개소, 2012년 11월 전략적 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원 약속에 따라 향후계획인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 예비사업 선정, 부지조성공사

시행, 나노융합기술 연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나노융합국가산단의 지정당위성으로는, ▲ 나노기술이 IT·BT·ET기술과의 융합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원동력 ▲ 연평균 18.2%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세계나노융합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육성의 필요 ▲ 한국전기연구원(밀양나노센터)의 산업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기계·항공·조선해양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유발효과 3조 28억 원, 부가가치 1조 7,051억 원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자료 : 도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055)211-2062

## 경남도, 낙동강수계 녹조 발생 예방 위해 2020년까지 1조 3,231억원 투입

- ▶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많은 지역 및 오염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등 우선 추진
- ▶ 정부차원의 녹조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촉구

경남도는 금년 녹조 발생 원인을 낙동강 중·하류 수계의 총인 농도가 2012년 대구 경계지점 0.108mg/L, 창녕남지하류 0.088mg/L 등 OECD 부영양화 기준인 0.035mg/L을 연중 상회하는 등 조류발생에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실시 전인 2009년도와

비교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하절기 극심한 가뭄에 따른 강수량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녹조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동강 수질은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할 때, BOD 기준 시 경북 고령지점 사업 전 3.1mg/L, 사업 후 2.5mg/L(△0.6), 창녕 남지지점 사업 전 2.8mg/L, 사업 후 2.4mg/L(△0.4)로 조사되었고, 총인 기준 시 경북 고령지점 사업 전 0.230mg/L, 사업 후 0.072mg/L(△0.158), 창녕 남지지점 사업 전 0.182mg/L, 사업 후 0.076mg/L(△0.106)로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녹조 발생에 주요 연관성이 있는 총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사업 전 : 2007~2009년 3년 평균, 사업 후 : 2012~2013년 상반기까지 평균

아울러, 2012년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지점의 수질측정결과를 볼 때도 조류경보 기준이 되는 남조류 발생은 수온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클로로필-a는 총인 등 수질오염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일조량, 강수량 등의 기상조건은 인위적인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서 수질오염원의 획기적, 지속적인 저감대책 추진에 주력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전 시·군의 균등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위주의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대책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많은 지역에 사업비 우선 투자, 주요

오염하천(지류)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추진 등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개선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3,23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가축분뇨발생량은 낙동강수계 전체의 1.5%에 불과하나 높은 오염부하로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은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 저감을 위해 축산밀집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총인농도 저감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개선대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배출부하량이 높은 단위유역 집중 관리 및 투자 우선
  - 대상유역:3개단위유역
    - 낙본J(창원, 김해, 밀양), 남강D(진주, 고성), 낙본I(창원, 창녕, 함안)
  - 추진방법 :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등 환경기초시설 우선 집중 투자
- ② 주요 오염하천(지류)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오염도가 높은 7개하천
    - 기추진(3) : 창녕 창녕천, 계성천, 함안 광려천
    - 신 규(4) : 창녕 토평천, 김해 화포천, 밀양 청도천, 양산 양산천
  - 사업내용 :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단기간 집중투자로 수질개선 효과 제고
-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 사업대상 : 20개소

- 기추진(4) : 축산밀집지역 2개소, 오염하천 2개소
- 신 규(16) : 축산밀집지역 11개소, 오염하천 4개소, 도심지 1개소
- 사업내용 : 인공습지, 도심 장치형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④ 총인처리시설 설치 확대
  - 사업대상 : 108개소 [기설치 48(하수 36, 폐수 12), 신규 60]
  - 하수처리시설 500㎡/일이상 → 100㎡/일 이상으로 설치 확대
- ⑤ 녹조발생(남조류) 검사지점 확대
  - 측정지점:‘13년 8개소 → ‘14년 15개소(지류 7개소 추가)
- ⑥ 정수비용 수계관리기금 지원 요청 등 취·정수장 지원 대책 강화 등 기타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녹조발생 주요 인자별 기여도에 대한 분석 등 정부차원의 녹조 발생 원인 분석과 녹조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오염부하량이 많은 상류와 단위유역에 우선하여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의 집중추진을 위해 국비를 대폭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자료 : 도 수질관리과 수질정책담당 (055)211-4214



## 창원시,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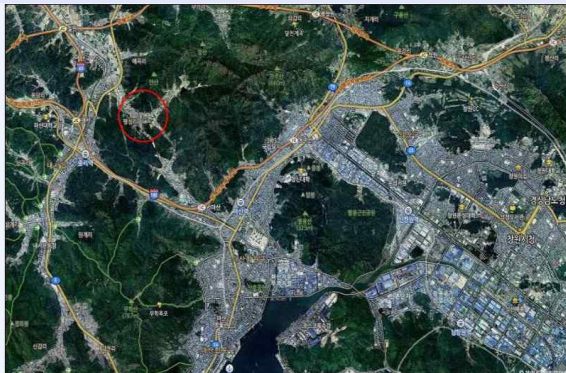
- ▶ 5억 원 투입해 용역 착수
- ▶ 부지협소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체 고민해결 차원

창원시가 관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고, 특히 인근 중리공단 부지협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조성된 지 40년이 된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연계해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발호재가 적었던 마산회원구 지역주민들과 기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약 100만㎡의 규모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창조형 산업단지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약 2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조달을 위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 자료 : 창원시 산업입지과  
(055)225-6742

##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 주민불편사항 신고

진주시는 가정집이나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하여 남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이 사업은 1단계는 천전동, 성북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지역으로 2008년에 시작하여 2012년 1월에 완공하여 민간투자자가 임대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중앙동, 성북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지역으로 2010년에 시작하여 2014년 4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BTL 1,2단계를 합한 총사업비는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에는 정화조의 설치가 필요 없고, 오수는 지하 2미터 아래 우수관을 통하여 흐르고 우수관과의 분리로 인하여 종전 하수구의 냄새가 없으며, 남강의 수질이 좋아져 주민생활 환경이 크게 좋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평소 일반 주택이나 식당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출할 때에는 싱크대에 기름망을 설치하고, 폐유의 방류, 변기에 휴지나 기타 오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하수관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택에서 오수관에 유입되기전 개인별로 설치한 오수받이를 월1회 정도 수시로 확인하여 찌꺼기 등을 청소해야 하며 주택 개보수시에 오수관 연결에 유의하여 빗물이 오수관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사업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거나 오수관 막힘 현상을 보일 때에는 집안이나 대문 밖에 설치된 오수받이를 열어 청소를 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진주시 하수과(☎055-749-4752)로 신고해주면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다.

한편 진주시는 BTL 사업구역 밖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 하수관거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료 : 진주시 하수과  
(055)749-4752

## 김해시, 소하천 98개소 시설물 일제점검 나서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에 소하천 98개소 (L=107.86km)를 일제 점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및 시설노후로 인한 소하천 내 호안, 낙차보 등 유실 및 파손에 대한 정비·점검을 실시, 시설물 내구성 향상과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한다.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겨울철 전 보수·보강을 완료하여 재해 사전 대비를 하고, 하천 시설물의 불법 손괴 및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 단속으로 소하천의 유지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제방, 호안 등의 유지 상태와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 구조물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및 불법 점용 상황과 하천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등을 집중 단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7 ~ 10월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 및 노후 하천시설물 기능복구를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년도 여름철 사전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김해시 공보담당관  
(055)330-3011

## 양산시,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박차



<물금서부지구 정비 전경>

양산시는 물금읍 물금리 서부마을 일원 65,247㎡의 부지에 2011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던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슬럼화 된 서부마을의 도로, 마을회관,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차례로 정비하는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전체 마을주민 700명중 25%에 달하는 180여명의 노인인구를 위해 1972년에 건립된노후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안길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지역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민편익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해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양산시 도시개발과  
(055)392-2952

### '공사비 절감, 기능향상' 최적설계 활용 쉬워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  
공법 심의... 절감액 인센티브 보장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개선제안공법은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 됨을 명기하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금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하여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 건설품질경영 대상 25일까지 사례 접수

▶ 창의적 공법·기능 개선 등 품질향상 유도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13년 건설품질경영대상'에 참가할 사례를 접수한다. 건설품질 경영대상은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품질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성실 품질관리 유도 및 건설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올해 6년째 시상하고 있다.

'건설품질경영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우수 품질경영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건설업체 및 기관을 시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반현장은 WASCON LEVEL III\* 이상, 건축/공동주택 현장은 AQUA\*\* 70점이상을 취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학계, 협회, 공무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World-wide Assessment System of Construction Quality Maturity Stage : 건설품질시스템 성숙도 평가 매뉴얼에 의한 평가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 Advanced Quality Assessment System : 건설품질 평가시스템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 및 기능개선 등을 심사하여 토목, 건축, 기타분야별로 품질경영대상, 품질혁신상, 고객만족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품질경영대상(3개, 장관상) 상금 200만원, 품질혁신상(3개, 협회상) 상금 150만원, 고객만족상(3개, 협회상) 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품질경영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O44)201-3579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어” 일제단속 실시

▶ 건설분야 자격등 대어 단속/  
계도기간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어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대어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어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어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합동단속 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05	162	193	134	72
자격정지	168	144	172	111	51
자격취소	37	18	21	23	21

<국가기술자격대어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하였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 팩스(02-3416-9262) / 우편(135-830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이메일(ki0910@kocea.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O44)201-3555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26일 기공식 가져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신축 착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기공식을 9월 26일 오후 3시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속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이 중 3단계 사업은 “9만 3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17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구촌의 축제로 치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최고의 품질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인 개항 이후 여객 수요가 매년 6%가 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여객수요 증가로 2017년경에는 여객터미널과 항공기 계류장 등 핵심시설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을 핵심으로 하는 3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심 축(허브)공항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전략을 모색 중이며, 아시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변공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3단계 건설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에 2조 2,000억, 연결교통망(철도, 도로)에 9,200억, 제2교통센터에 2,300억 등 총 4조9,3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3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처리능력은 현재 4천4백만명에서 6천2백만 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은 450만 톤에서 580만 톤으로 증가된다.

3단계 사업의 건설기간 중에는 약 93,000개의 일자리와 약 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4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 자료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O44)201-4337

## 국토부, 도로면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이상 투입키로

- ▶ 암반 비탈면의 일제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라 특별 관리하고,
- ▶ 도로 위 산사태 예방 위해 산림청·지자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하기로

국토교통부는 “금년 장마철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의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부근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7,584개소(고속도로 7,827개소, 국도 29,757개소)로써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탈면 붕괴 원인은 토질이나, 지질 상태인 비탈면 내부요인과 강우량, 배수조건 등 비탈면 외부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도로 건설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비탈면이 풍화되고 보강시설이 노후화되어 붕괴에 대한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되며,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로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비탈면 붕괴위험 예측, 배수상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탈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낙석 발생이나, 일부 비탈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안전진단 등을 통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도로 설계시의 비탈면 붕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상기후에 따른 지형/배수조건, 강우강도/지속시간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11년도에 비탈면 안전에 대한 설계기준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탈면이 과거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건설 후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횡단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암반 비탈면은 건설시 일정한 경사각으로 시공 후 표면이 녹화되어 있어 비탈면에 접근이 어렵고, 육안으로 풍화진행이나, 이상 징후를 미리 알아내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내에만 관리하고, 도로 밖 산림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도건설 등으로 배수구조물이 감당해야할 강우량(유역면적)이 바뀌거나, 물길이 변경되어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이 지적되어 왔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비탈면 붕괴와 토석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①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에 대해 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② 피해복구 차원의 보수·보강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③ 위험지역이지만 즉시 복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④ 건설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① 최근 붕괴가 잦은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 위험지구에 대해 현장여건에 부합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서, 종전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토사 비탈면이나, 암반 비탈면은 낙석발생 사례가 있거나, 뜬돌, 박힌돌 등 낙석발생 위험구간 위주로 관리 중이었으나, 암반의 풍화 정도, 절리방향형태, 배수상태 등 암반 비탈면을 일제 조사하여 위험도를 분류하고, 암반의 절리방향이 도로방향과 같거나, 층리와 층리 사이에 연약한 점토가 있는 지역 등은 중점 관리하기로 하였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도로 밖의 위험요소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 내에 최소한의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산림청(또는 지자체)은 도로 밖 산림의 유실방지시설(사방댐 등)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또한, 현재 관리중인 도로 비탈면 전체의 위험도를 분석해서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고속도로는 매년 40개소(약 80억), 국도는 250개소(약 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1·II 등급(1,563개소, 5.3%)은 '17년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해빙기나 우기 점검시 발굴한 위험지역 또는 장마나 태풍시 발생한 피해 지역 등은 최우선 정비하고, 매년 250개소씩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진단 등을 통해 비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할 계획이다.

③ 한편, 비탈면이 녹화되어 있어 즉시 보강이 어렵거나, 비탈면 경사 완화 등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사전에 붕괴 예측을 위해 지반균열/변형 계측 등을 위한 상시 계측기 또는 CCTV를 설치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에 대한 예측기술 개발과 녹화 비탈면에 대한 변화상황 계측이 용이하도록 관련 R&D도 '14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아울러,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용이성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상대적으로 풍화가 용이한 퇴적/변성암 비탈면은 가급적 녹화공을 지양하고, 사면경사를 보다 완화하거나, 추가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토석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토석류 피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토석류 저감시설을 설치를 위한 산림청(또는 지자체) 협의 실적을 제출·관리하도록 하는 등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관련 기준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09

## 경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3조 3,855억원 정부예산안에 반영

- ▶ 홍준표 도지사, 간부공무원과 함께 국고 확보 위해 발 벗고 나서
- ▶ 부처 반영액 보다 기획재정부 반영액이 2,738억 원 늘어

정부가 지난 9월 26일(목)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경남도 국고예산 반영액은 3조 3,855억 원(국고보조사업 511건, 2조 6,837억 원, 광특회계사업 148건, 7,018억 원)으로 전년도 확보액 대비 1,018억 원(3.1%)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시행사업 81건, 2조 2,406억 원을 포함하면 총 740건에 5조 6,261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국고 예산 확보액 5조 5,564억 원(국고보조 2조 4,948억 원, 광특회계 7,889억 원, 국가시행 2조 2,727억 원) 보다 697억 원(1.2%)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중 경남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4,194억 원, 영유아 보육료 : 2,298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875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4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 41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 325억 원,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 60억 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 : 119억 원, 적조우심해역저질개선 : 40억 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 22억 원, 해삼종묘생산 시설 건립 : 22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광특회계사업은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 110억 원, 갈사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 : 50억 원,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 : 45억 원,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 129억 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건설 : 150억 원, 동읍~한림(국지도 60호선) 건설 : 170억 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건설 : 190억 원, 미수~무전(국지도 67호선) 건설 : 8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시행사업으로는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 4,960억 원,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 697억 원,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 1,030억 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표준공장 재건축 : 162억 원, 남해고속국도(냉정~부산) 확장 : 2,453억 원, 김해~부산외곽 순환고속국도 건설 : 3,280억 원, 거제~마산2·3(국도 5호선) 건설 : 400억 원, 웅동~장유(국도 58호선) 건설 : 353억 원, 고현~하동IC 1·2·3(국도 19호선) 건설 : 187억 원, 창녕~현풍고속국도확장(대합IC 설치) : 10억 원 등이다.

한편, 경남도는 국가경기는 물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예산 운용에 큰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1월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홍준표 지사는 일찍이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2014년 국고예산 및 국책사업 확보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간부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제1·2차관을 비롯한 예산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과 2회

에 걸쳐 가진 당정협의회를 통해 2014년 국고예산 확보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다.

아울러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관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방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한 전체 반영액은 5조 6,261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 5조3,523억 원 보다 2,738억 원(5.1%)을 추가 반영하였다.

특히, 국토부에서 반영한 사업 중 추가 확보가 필요한 88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744억 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14억 원, 김해~부산외곽 순환도로 국도건설 2,460억 원 등 3,863억 원을 기재부에서 추가 확보해 경남 서북부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경남도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기조에도 불구하고 창녕~현풍고속국도확장(대합IC설치)사업에 10억 원, 승강기 산업 구조고도화 및 기술료 지원 20억 원, 적조우심해역 저질개선 등 적조예방에 75억 원, 수산물처리 가공저장 시설 29억 원, 미 FDA 지정해역 관리를 위한 관리선박 건조 지원 12억 원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는 10월초부터 국고 미반영 주요사업 조서를 작성하여 국회를 방문, 회별 주요사업 2~5건을 작성,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직접 방문하여 국고확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예산안은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자료 : 도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3

## 통영 욕지도 및 거제 장승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나

▶ 경남도의 해상풍력자원 우수지역 용역 결과

경남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통영 욕지도와 거제 장승포가 가장 우수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상풍력자원 타당성 조사는 국가바람지도상의 풍황여건, 연안관리구역, 계통연계, 수심, 어업현황, 부지확보 가능성 등을 대상으로 도내 6개 지역의 최적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통영시 욕지도와 거제시 장승포의 2개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경남도의 용역을 수행한 (주)항도엔지니어링(풍황계측 : 부산대학교)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도내 2개 지역에 걸쳐 풍황자료 수집을 위해 계측장치를 부착한 타워를 지상 60m에 설치해 조사를 수행,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영 욕지도는

연평균 풍속 7.2m/s, 거제 장승포는 연평균 풍속 6.3m/s로, 2개 지역 모두 풍력자원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풍황계측결과 풍속이 6m/s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번에 발굴된 해상풍력발전단지 후보지 2개소의 최대 발전규모는 통영시 옥지도가 385MW, 거제시 장승포가 125MW로 총 510MW급 용량이며, 이는 17만 가구(1가구당 3kW 전력 사용 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석유 등 화석연료의 한정된 매장량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환경오염의 방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도 기준으로 통영 옥지도(385MW)의 경우 통영시 총생산의 270%, 거제 장승포(125MW)의 경우 거제시 총생산의 5.1%에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내 남부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발전단지,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6개소의 육상 및 해상풍력 자원을 발굴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력연계망 구축방안을 강구하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담당  
(055)211-2784

### 확장형 발코니 이대로 좋은가...



김진관

한국국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순위를 매긴다면 최상위에 랭크될 단어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개념을 떠나 아파트 크기가 그 사람의 사회 지위와 재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시대이니 당연히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미분양아파트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분양을 받기위하여 모델하우스 앞에서 줄서서 밤을 새던 때도 있었는데 수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규제를 풀어 분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확장형 발코니가 합법화 된지도 십여 년이 흘렀다. 따지고 보면 불법이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배경은 국민들의 여론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적은 돈으로 좀 더 넓은 주택에서 살고자하는 욕구로 입주 후에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가가호호 방문하고 확인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불법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시 대피 공간의 부족과 화재의 확산**이다. 이 문제는 최소한의 대피 공간 확보와 인접 세대로 탈출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랫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화재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한 가지의 문제는 **단열 문제**이다.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라는 축열공간이 있어서 열을 어느 정도 축적하여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확장형에서는 외부 창호 단열을 잘 한다고 하여도 발코니가 있을 때 보다 단열효능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입주자들에게 난방비와 냉방비 증가로 돌아온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 갈등의 문제이다. 아파트 내에서 층간 발생하는 갈등은 층간 소음이 대표적이지만 알고 보면 층간 소음보다 더 불편을 겪는 것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냄새**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발코니가 없으니 창문을 열어 놓으면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거실이나 침실로 바로 들어온다.

이러한 작은 문제로 이웃 간의 좋지 않은 감정이 누적되어 층간소음 문제 등 다른 문제로 까지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시킨 가장 큰 원인인 넓은 공간 확보 문제이다.

갈수록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제는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제 굳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까지 실내면적을 넓히려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주택과 비교하여 아파트의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발코니라는 외부와의 완충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택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용도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선택사양이라고는 하지만 발코니확장형을 당연시하여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방과 거실은 너무 작아 그 용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싱크대나 가구 배치 등이 조잡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확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확장으로 인한 공사비를 더 받고 있는데 과연 확장을 하는 것이 그 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확장형은 발코니와 거실사이 벽이 없어 공사과정이 단순하여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재료비나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발코니 확장을 **건설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대피를 위한 작은 공간 이외에 발코니가 없다면 형태상으로 오피스텔과 크게 구분도 되지 않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형태상 차이는 크게 보면 발코니 유무(有無)와 욕조 유무인데 발코니가 없으니 굳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분할 명분도 없어지는 셈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실 여건에 따라서 건설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토지거래도 허가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 정책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코니 확장 합법화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입법예고일 : 2013. 9. 2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85호)
- 예고기간 : 2013. 9. 25. ~ 11. 4.

#### □ 제정이유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영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특별조치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지정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은 의회 동의없이 지정된 것으로 봄.

#####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영 제4조)

특별조치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 다. 국가시책사업(영 제5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한 사업으로 정함.

##### 라. 신고절차 등(영 제6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제출할 서류(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마.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영 제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 되는 경우에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을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부터 30미터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 의견제출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전화 : 044-201-3762, 팩스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입법예고일 : 2013. 9. 2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86호)
- 예고기간 : 2013. 9. 25. ~ 11. 4.
- 개정이유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8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 (안 제29조)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 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규칙 제20조 별표 6)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 자료 : 법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3. 9. 10.(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43호)
- 예고기간 : 2013. 9. 10. ~ 10. 21.

### □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대물변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 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 다.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 등기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료 : 법제처

##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연결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비제이피코리아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2호
-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호 연결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상부파일과 하부파일 사이에 강재 연결블럭을 위치시키고 고장력 수직볼트로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PC너트와 볼트결합하여 응력을 유지하면서 연결하는 무용접 수직볼트식 연결공법이다. 또한 연결블럭의 테두리부위를 외부링으로 지지함으로써 지지강도를 보강하며, 별도의 이음파일의 제작이 필요 없고 기성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무용접 연결공법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길이방향 연결시 고장력 볼트를 수직으로 체결한 후 강재연결블럭 테두리에 외부링을 볼트로 연결하는 공법

## 다가능 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SHS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아룩이엔지
	(주)한국종합기술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1호
- 기술분야 : 토목/상.하수도/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튜브에 내장된 안전고압호스를 통해 고온의 스팀을 튜브내에 골고루 공급하여 튜브에 함침된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반응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경화반응을 가능하게 하여 경화, 양생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고, 또한 튜브내에 고인 응축수를 안전고압호스를 통해서 손쉽게 배출할 수 있어 시공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하수관(D250~1,200mm) 전체보수 기술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가능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하여 경화용 고온의 스팀과 냉각용 상온의 공기를 하수관에 균일하게 공급하고 양생시 안전고압호스로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하수관(D250~1,200mm)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제10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5건
- 심의일자 : 2013. 10. 15.(화)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3-10-01	경상남도 상·하수도분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2013-10-02	경상남도 상·하수도분야(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2013-10-03	창원시 폐기물분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환경위생과)
2013-10-04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준공인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신도시조성과)
2013-10-05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창군 (산림복지과)

### 2013년 제1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5건
- 심의일자 : 2013. 10. 24.(목)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3-11-01	실시설계 (적정성)	가야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가야리 · 사업내용 : 우수저류지및배수펌프장 설치, 하도정비 · 사 업 비 : 197.1억원(공사비159.6, 보상비등37.5)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함안군
2013-11-02	실시설계 (적정성)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함천군 가회면 월계리~쌍백면 삼리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8.3km, B=8.0m · 사 업 비 : 296억원(공사비 272, 보상비등 24) · 사업기간 : 2014 ~ 2019년	도 균형 발전단
2013-11-03	실시설계 (적정성)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4.9km · 사 업 비 : 178.9억원(공사비 101.3, 보상비등 77.6)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거제시
2013-11-04	실시설계 (적정성)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삼장면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5.1km, · 사 업 비 : 270.5억원(공사비185.7, 보상비등84.8) · 사업기간 : 2013 ~ 2017년	산청군
2013-11-05	실시설계 (적정성)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 · 사업내용 : 공원조성 A=228,200㎡ · 사 업 비 : 199억원(공사비 182, 부대비등 17)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합천군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당 (055)211-4625

##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9월	계	25	34,173	32,598	1,575	4.61%	
	공사	토목	13	24,634	23,307	1,327	5.39%
		건축	2	975	972	3	0.22%
		기타	3	1,691	1,590	101	6.02%
	용역	5	6,445	6,303	142	2.20%	
	물품	2	428	426	2	0.54%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팀당 (055)211-3548

## 기술인 나능 정보

### 토목 · 건축시공기술사과정(부산, 경남지역) 교육

####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토목시공기술사	콘크리트 I·II, 연약지반, 토공, 흙막이 굴착/기초 I·II, 사면안정/옹벽, 하천, 터널, 교량 공정관리/QC, 도로/건설기계, 항만/댐, 기출문제분석및해설,용어정리,시사성및총정리
건축시공기술사	총론 I·II·III, 공정관리, 기초공사/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I·II·III·IV, 철골공사 토공사 I·II, 기초신공법, 초고층/PC/CW공사, 마감공사, 시사성 및 총정리

#### □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인원	교육비
토목시공기술사	2013. 10. 15 ~ 12. 5 (8주 / 48시간)	매주 화, 목요일 (19:00 ~ 22:00)	50명	210,000원
건축시공기술사	2013. 10. 15 ~ 12. 5 (8주 / 48시간)	매주 화, 목요일 (19:00 ~ 22:00)	50명	210,000원

□ 교육신청 : 2013. 9. 23 ~ 10. 15.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신청

□ 교육장소 및 문의 : 동래평생교육원 4층/02)3416-9431(교육지원팀)

■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표창후보자 추천

□ 목 적 :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수 건설업체 및 우수 건설인 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표창

###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8명
- 표창훈격 : 도지사 표창
- 표창분야 : 2개분야(건설업체 6개업체, 건설관계자 2명)
- 표창추천요건 : 경상남도 공고 제2013-624호 참고(도 홈페이지)

### □ 표창후보자 추천

- 접수기간 : 2013. 10. 1. ~ 10. 20.(20일간),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경상남도 건설방재국 건설지원과
- 접수서류 : 경상남도 공고 제2013-624호 참고(도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055-211-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쉽다 참고송입니다.